

목포시, '근대의상 패션쇼'로 매력 발산



목포시가 근대의상 패션쇼로 근대역사문화 도시로서의 매력을 선보인다. 목포시는 9일 오후 5시 30분 원도심 '목포미'

오늘 오후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김현빈 등 국내 정상급 패션모델 30여 명 참여

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패션쇼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목포미식문화갤러리는 근대 관세업무를 담당했던 구 목포세관 창고로, 목포시가 최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시는 이번 패션쇼를 위해 국내 최고 패션업체인 슬림스톤(대표 박종철)과 지난해 12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 대표는 도교동 패션쇼, 광주우패션위크, 뉴욕컬렉션, 한류페스티벌 등에서 패션쇼를 진행했고 K팝아이돌 의상을 제작하는 등 세계적인 한국 남성복 디자이너다.

패션쇼는 김현빈, 민승찬, 서보권, 이다경 등 국내 정상급 패션모델 30여 명이 참여해 1930년대 근대 빈티지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런어웨이에서 선보인다.

또 근대 오리지널 의상을 착용한 모델 2명이

패션쇼 인트로에서 출연하며, 의상 2벌은 목포시에 기증된다.

슬림스톤은 9~10일 패션모델 30명과 함께 목포근대역사관1관~송자갤러리, 근대역사관 2관 등 목포의 고풍스러운 근대거리를 배경으로 패션 영상도 촬영한다.

영상은 칼라뿐만 아니라 근대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흑백으로도 촬영되며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목포의 근대역사유산을 국내외에 알린다.

박종철 목포시장은 "이번 패션쇼는 고유한 목포근대문화를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알리는 장이다"면서 "앞으로도 목포가 가진 유행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추울땐 고구마범벅, 간식은 황토실빵" 무안전통시장서 무안맛탕축제 먹거리 판매행사 가저

무안군이 무안맛탕축제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인기식품 먹거리 판매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일 무안전통시장 수산동 입구에서 개최된 무안맛탕축제 먹거리 판매 행사에서는 지난 해 11월 무안맛탕축제에서 절판될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추억의 간식인 고구마범벅(고구마단팥죽)과 황토실빵이 판매되어 4시간만에 절판되는 등 무안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판매행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농촌지원과, 지역경제과 등 협업과 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과 전통시장 상인회 협조를 통해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생활개선무안군연합회의 주체로 운영되었다.

판매 품목은 2종으로 고구마범벅(고구마단팥죽)은 한그릇 2,000원, 황토실빵은 3개 2,000원으로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황토음식의 추억을 환기시키고,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먹거리를 구입한 주민들에 따르면 맛과 영양, 건강면에서 훌륭하다는 평이며 수익금은 전액 승달장학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농촌진흥 시범사업 신청 접수 4개 분야 23개 사업, 2월 3일까지

신안군은 2023년 농촌진흥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4개 분야 23개 사업에 총 21억 2천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오는 2월 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금년에 추진하는 농촌진흥시범사업은 ▷작물환경 분야에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 등 11개 사업 29개소 ▷소득작물 분야에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등 9개 사업 11개소 ▷경영교육 분야에 청년 창업농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2개소 ▷농산가공 분야에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 1개소 등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신안군으로 등록 되어 있는 농업인이 읍·면 농업기술센터 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와 시범 효과 검토 후,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대상농가 및 시범단지를 선정한다.

사업신청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jares.shin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영암군 "소각 대신 파쇄하세요"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 실시...농업기술센터 30여 대 운영 중

영암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으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올해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과수 잔가지, 콩대, 고춧대 등) 파쇄기를 무상 임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영농부산물 불법투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및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용 파쇄기는 30여 대를 운영중에 있다.

무상임대 신청은 이장 및 마을대표가 농기

계임대사업소로 직접 전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470-6618) 또는 방문 예약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각 금지로 인해 수확 후 발생한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많지만, 파쇄기 무상임대가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파쇄기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축산분야 사업 신청·접수...20일까지

함평군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축산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

함평군은 "축산분야 70여 개 사업에 대해 오는 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추진사업은 ▲저메탄 조사료종합유통 센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축사악취 개선 사업 ▲방역인프라 ▲한우농가 헬퍼지원 ▲함평전지한우 육성 ▲양계-오리 생산성 향상 ▲양봉경쟁력 강화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이달 20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함평=김광훈기자

영광군, 2023년도 농업인상담소 운영 안내

영광군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0개 읍면의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여 영농현장 민원 해결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상담소는 영농 일선에서 농업인들에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영농기술과 상품종자 등을 보급하고 영농기술 상담을 함으로써 영농현장 민원을 해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농업의 리더인 농업인 학습단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고령농, 취약농가 등 농업인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고윤자)은 "올해에는 영농현장 지도를 활성화하여 농업인과 소통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